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혼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16

넥슨 모바일게임, 3연타석 흥행 홈런 치나

하반기 '다크어벤저3', '액스' 인기가도 사전예약 100만 돌파 '오버히트'도 기대 이정헌 부사장 "시장 뒤흔들 최고의 게임'

넥슨이 모바일게임서 3연 타석 홈런을 노린다.

넥슨은 신작 모바일게임 '오버 히트'를 28일 출시한다. 26일부터 사전 공개 서비스도 시작했다. 넥슨은 올해 연이 어 히트작을 내놓으며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확 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만 7월 '다크어벤저3', 9월 '액스' 등 출시하는 모바 일 역할수행게임(RPG)마다 크게 흥행했다.

전작의 흥행성과도 오버히트에 대한 기대감 을 높이는 요소다. 오비히트는 지난 2015년 출 시된 모바일게임 '히트'의 정식 후속작이다. 히 트는 출시 하루 만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 를 차지했다. 또 양대 마켓 1위라는 흥행기록도 수립했다. 국내뿐 아니다. 해외에서도 다수 국 가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 과를 냈다. 당시 넥슨은 모바일 시장에선 특별 한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던 때 다. 히트는 그런 넥슨에 모바일에 대한 자신감 을 심어준 타이틀이다.

넥슨은 오버히트를 통해 게임명처럼 히트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사전 흥 행 예감도 좋은 편이다. 사전예약자는 100만을



훌쩍 넘어섰으며, 최근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7' 에선 하루 평균 1만1000명 이상의 관람 객이 오버히트를 체험했다.

오버히트는 영웅(캐릭터)들을 수집해 전투 를 벌이는 수집형RPG다. 가장 큰 특징은 언리 얼엔진4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풀3D 그래 픽. 메인 모드인 '모험'에선 풀3D 기반 스토리 컷씬을 통해 풍부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스 킬 사용 시 나오는 시네마틱 연출은 마치 콘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킬 정도의 높은 품 질을 자랑한다.

전략성 높은 전투도 강점이다. 오버히트는 다양한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의 조합과 진형 배치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는 전략 전 일 개인간대전(PvP)콘텐츠인 '결투장'에선 서

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캐릭터들 이 전투에서 합을 이루는 '오버히트 스킬' 통해 보다 화려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수집 형 RPG 장르에서 보기 드문 오픈 필드를 구현 한 '미지의 땅'에선 두 개의 진영간 대립과 거점 전을 핵심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메인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모험 외에 다 양한 게임 모드도 즐길 수 있다. '토벌전'은 유 저가 소환전용 재화를 사용해 진행할 수 있는 이용자와 컴퓨터간 대전(PvE)콘텐츠다. 지정 한 레벨의 토벌 몬스터가 일정 시간동안 소환 되며, 제한 시간 동안 유저를 포함해 친구 혹은 같은 길드원이 도전할 수 있다. 유저간의 일대



올해 모바일게임 시장서 연이어 히트작을 내놓고 있는 넥슨이 또 다른 기대작 '오버히트'를 28일 출시하며 3연 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오버히트의 대표이미지(왼 쪽)와 홍보모델로 발탁된 축구감독 거스 히딩크.

사진제공 | 넥슨

로의 덱을 비교해 전투를 할 수 있다. 점수에 따 라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경쟁심을 자 극하는 콘텐츠다.

이정헌 넥슨 부사장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 임(MMORPG)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최고 수준의 퀄리 티를 보유한 게임이라 확신한다"며 "국내는 물 론 글로벌 시장에서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 중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 화를 쓴 축구감독 거스 히딩크를 홍보모델로 전격 발탁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하이카카오 시장 이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올해 200억 예상 고함량 카카오 항산화 효과 알려져 인기

한 때 위축되었던 하이카카오, 일명 다크 초콜릿 시장이 웰빙 바람과 함께 되살아나 고 있다. '드림카카오'(사진)는 출시 직후인 2006년에는 연매출이 600억원에 이를 정도 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고함량 카카오 의 쌉쌀한 맛이 소비자의 기호와 맞지 않아

2008년 이후에는 연매출이 100억원까지 떨

하지만 최근 3년동안 '드림카카오'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제 2의 '드림카카오'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하이카카오 시장의 대표 제품은 롯데제과 '드림카카오'다.

'드림카카오' 초콜릿은 2006년 출시돼 올 해로 판매 11년째를 맞고 있는 고함량 카카 오 초콜릿이다. 닐슨포스데이터 기준으로 올해 1~9월 누적 매출은 138억원으로 지

난해 104억원보다 약 33% 올랐다. 이는 또 2015년 같은 기간의 110억원보다는 약 25%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드림카 카오'의 올 연말까지 실적은 지난해(157억) 보다 크게 오른 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드림카카오' 매출이 꾸준히 오르는 원동 력은 카카오의 효능이 널리 알려진 덕분이 다. 롯데제과는 카카오에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 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소비자 편의에 맞춘 다양한 제품군도 판매 확대로 이어졌다. '드림카카오'는 현재 카카



오 함량 56%인 제품과 72%인 제품을 판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크초콜릿에 카카오 닙스를 함유한 '드림카카오닙스' 56%와 72% 제품도 선보는 등 다양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페이커' 이상혁과 홈런타자 최정이 한자리에



세계 최강 e스포츠 선수 '페이커' 이상혁과 한국프로야구 대표 홈런타자 최정이 만났다. SK텔레콤은 25일 을지로 사옥에서 SK텔레콤T1과 SK와이번스 선수들이 참여하는 행복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최정과 박종훈, 이상혁과 배준식 등 총1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SK그룹 바자회 결실과 합 쳐 민간단체인 기아대책에 12월 초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리그오브레전드' 시범경기를 하고 있는 이상 혁(왼쪽 첫번째)과 최정(왼쪽 두 번째). 사진제공 | SK텔레콤

LF 헤지스, '1억 인구' 베트남 진출

롯데백화점 하노이점에 매장 오픈 2020년까지 15개 현지매장 계획

LF 헤지스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달 베트남 현지 패션유통 전문기업 '케 이 트레이딩'과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 어, 최근 베트남 롯데백화점 하노이점 1층에 100m² 규모의 헤지스 복합 매장을, 4층에 헤지

스골프 단독 매장을 열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육박하는 등 거대 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 패션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골프의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형성기인 만큼 시장이 점

차 확장되는 추세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상균 LF 영업운영부문장 전무는 "현지 판 매가를 국내 정가 대비 10%가량 높게 책정하 고 글로벌 전략 라인을 선보이는 등 철저한 고 급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2020년까지 현



베트남 현지 고객들이 최근 베트남 롯데백화점 하노 이점 1층에 신규 개점한 헤지스 복합 매장에서 글로벌 전략 라인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지 고급 백화점 유통망을 중심으로 총 15개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CC 진에어, 창립 9년 만에 코스피 상장

2020년까지 항공기 38대 79개 노선 취항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창립 9년 만에 코스피에 상장한다. 진에어는 24일 현민 부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진에어는 이번 상장을 위해 구주매출 900만 주, 신주모집 300만 주 등 총 1200만 주를 공모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최정호 대표이사, 조 한다. 23일과 24일 이틀간의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했고, 청약은 29일과 30일 진행한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며, 12월 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45%대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연평균 70%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는 매출 7197억원, 영업이익 52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월부 터 9월까지 누적 매출액 6564억원, 영업이익

780억원을 올렸다.

진에어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아시아 대표 L CC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매년 4~5대의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해 총 38대 항공기를 보유해 국내외 52개 도 시, 79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부터는 국내 LCC 최초로 봄, 여름 성수기에 동 유럽도 취항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0일~24일

코스피지수	2544.33		+10.34
코스닥지수	792 <u>.</u> 74		+16.89
日 닛케이 지수	2만2550,85		+154.05
中 상하이 종합	3353,82	•	-29.0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7		0
환율 (원 · 달러)	1086.50	•	-13.00
국내금값 (원/그램g)	4만5115.61	•	-190.83

지수는 24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이강훈 오뚜기 대표 은탑산업훈장



오뚜기 이강훈(사진) 대표이 사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 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식품대전'개막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오뚜기가 매년

1000억원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30여개 국 가로 1000억원 상당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10년간 라면 가격 동결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점도 수상 사유로 들었다.

한편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식품대전에는 '맛을 담아, 희망을 담아'란 슬로건으로 190여개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식품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판로상담지원, 창업투자 상담, 최신 시장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비즈 TALK TALK

-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와 자유무역협정 (FTA) 등 경제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7 여시재포 럼'에 참석해)
- "한국기업의 현금 보유 비율은 미국보다 높지 만, 중국·일본 보다 낮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26일 '한·미·일·중 100대 기업 현금흐름 비교분석' 자료를 추정한 결과)
- "협력사도 생산 현장의 혁신활동, 설비의 자 동화 등으로 제조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조 성진 LG전자 부회장, 24일 창원R&D센터에서 열린 협력회 워크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생산 현장의 역량이 경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데이터 경제

2017 IMD '인재 경쟁력 지수' 국가 순위

우리나라의 인재 경쟁력이 세계 39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6 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센터가 발표한 '2017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 지수는 100점 만점에 55.82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했으며, 2015년 32위에 비교하면 7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30개 세부 항목 중 인재 유지 · 유치 관련 '노동자 동기부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12 점으로 59위였다. 인재 유지 관련 '두뇌유출'과 기업 수요 충족 관련 '경영 교육'은 각각 3.57점과 4.62점으로 하위권인 54 위였다. '국제적 경험'과 '삶의 질'도 각각 51위와 50위에 머물렀다.

※ (100점만점 . 조사대상 63개국 기준)

※ ()는 작년대비 순위 변동 1 스위스 100점 89,36점 3 🔢 벨기에 83,8점 83,63점 83,18점 5 🚻 핀란드 6 🔙 네덜란드 82,86점





편집ㅣ신하늬 기자